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3. 18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덴마크, ISIS 가담 혐의로 자국민 최초 '반역죄' 기소
  - 3.10 덴마크 검찰 당국은 31세 자국민(신원 미공개)에 대해 자발적 ISIS 접근·가담 및 同 테러단체를 위한 시리아 내 무장활동 참여 외에 자국민 최초로 '반역죄'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한다고 발표
    - \* 검찰은 동인의 혐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종신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
- 伊, 테러자금 모금 혐의 알바니아인 4명 체포
  - 3.14 이탈리아 경찰은 남동부 바리市에서 △ISIS 선전물을 소지하고 △알바니아에 수감되어 있는 지도자를 위해 테러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알바니아인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
    - \* 알바니아어로 번역된 선전물 중 일부는 코로나19를 '알라의 작은 병사'로 언급

#### 미주

- 美,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인 '증오범죄' 급증
  - 3.14 美 비영리 사회 단체('Stop AAPI Hate\*')는 최근 보고서에서 팬데믹 기간인 '20.3월~'21.12월까지 총 10,905건의 아시아인 증오범죄(女 60%, 한국계 16.1%, 중국계 42.8%)가 발생,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
    - \*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 내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설립('20년)
- 美 중부사령관, 아프간 내 ISIS 공격 급증 경고
  - 3.15 「케네스 맥켄지」 美 중부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“ISIS에 대한 탈레반의 압박이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, 수개월 내로 아프간에서의 ISIS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경고
    - \* 작년 9월 「마크 밀리」 美 합참의장 역시 이르면 '22년초 아프간에서 ISIS의 재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아프간 내 ISIS 위협에 대한 우려 고조

## 아 · 태평양

### ○ 호주 무슬림단체, 이슬람 혐오 공격 실태 분석

- 3.14 호주 무슬림단체 IRA는 '18~'19년 호주에서 발생한 이슬람 혐오공격 247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82%가 여성이었으며, 특히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테러\* 직후 2주간 4배 증가했다고 발표

\* '19.3.15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市에서 백인우월주의 남성이 모스크에 총기 난사(사망 51)

### ○ 국정원, 올해 쏠 세계적 '극우·증오형' 테러 확산 전망

- 3.14 국정원은 '2021년 국제테러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\*' 책자에서 올해 쏠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장기불황으로 인한 극우·증오형 테러 확산을 전망하며 해외 체류 우리 국민 피해 발생 가능성 우려

\* △극우·증오형 테러 및 '아시아 혐오' 테러 심화 △ISIS·알카에다 등의 중동·아프리카 지역 공세 강화 △'하이브리드戰' 수단의 테러 사용 등

### ○ 춘천 레고랜드, 개장 前 '대테러·안전 합동훈련' 실시

- 3.15 춘천 레고랜드(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)는 오는 5.5 개장을 앞두고 비상상황 대응 역량 점검 등을 위해 국정원, 지자체(강원도, 춘천시), 軍·警·소방 등이 참여하는 '대테러·안전 합동 훈련\*' 실시

\* △통제선 구축 △피랍자 구조활동 △화재 진압 및 피해자 구조·응급 후송 훈련

## 중 동

### ○ ISIS, 추종세력 대상 '러-우크라이나' 사태 불개입 촉구

- 3.10 언론은 ISIS가 자체 홍보매체 '알-나바'(Al-Naba)를 통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'서방에 대한 천벌'이라고 표현하며 추종자들에게 중립을 유지하고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

\* ISIS는 現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를 '십자군 對 십자군의 대립'으로 표현

### ○ 사우디, 테러 등 혐의로 하루만에 81명 사형

- 3.12 사우디 당국은 △ISIS,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에 대한 충성 맹세 △보안군 암살 시도 △무기 밀반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자국민 73명, 예멘인 7명, 시리아인 1명 등 총 8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

파키스탄 외교단지 교회 겨냥 수류탄 투척 테러

- '02.3.17, 오전 10시 50분경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소재 교회에 남성 괴한 2명이 침입, 수 개의 수류탄을 투척, 5명이 사망(美 외교관 가족 2명 포함)하고 스리랑카 大使·미국인 등 46명 부상
  - \* 同 교회는 외교관 가족들의 주요 종교활동 장소로 사건 당시 수십명의 신도가 예배
- 同 사건은 美 대사관 등 각국 외교공관들이 상주해 있어 평소 경계가 삼엄한 외교단지 안에서 발생, 파키스탄 사회에서는 '자국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어디에도 없다'라는 테러 위협 공포감 급속 확산
  - \* 외교단지 인근에는 대통령궁도 소재해 해당 지역 일대는 일반인 출입도 제한
- 이런 상황에서, 「무샤라프」 파키스탄 대통령은 테러범 추적을 명령하는 한편, 이번 사건을 '首都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사태로 자신의 불순 무장세력과 테러리즘 척결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'라고 비난
  - \* 9/11테러 이후 해외 美 대사관과 軍기지 시설물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자, 테러범들은 교회 같이 접근이 용이한 '소프트 타겟'(Soft target)을 우선 공격 목표로 선정
- 9/11 이후 대테러戰에서 「무샤라프」와 협력중인 「부시」 美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, 테러범 체포를 위해 긴밀 공조하겠다고 약속
  - \* 美 국무부는 파키스탄 內 자국 외교관 中 필수인원 外 여타 공관원과 가족 철수 지시
- 한편, 3.27 파키스탄 경찰과 美軍 특공대는 편잡州에서의 대테러 합동작전을 전개해 알카에다, 탈레반 조직원 등 35명을 체포했으며, 이들 중 일부가 3.17 교회 수류탄 투척 테러의 연계자들임을 확인

하드타겟과 소프트타겟

- (하드타겟) 대통령·총리·외교관 등 요인, 경찰·군인·정보원 등 보안요원, 공무원 등 정책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인원 및 정부청사·군사시설·외교공관 등 경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격이 쉽지 않은 정부 관련 시설을 지칭
  - ※ 과거 팔레스타인 계열 테러단체 및 극좌 테러단체들의 호공격 대상
- (소프트타겟)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는 이슬람과 관련 없는 시설·인원도 모두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, 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민간인과 쇼핑몰· ไนท์클럽·지하철역·대중교통수단 등 경비수준이 낮아 외부공격에 취약한 민간시설 등을 지칭